



# 중국리포트

##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国上海市 长宁区 遵义路 100号 南丰城 A-1803  
 Tel. +86-21-6090-0395~6, Fax. +86-21-6090-0397



제19-21호  
 2019년 11월 18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 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2018년 중국 자무구 화물 수출입액 및 실제 외자 이용액(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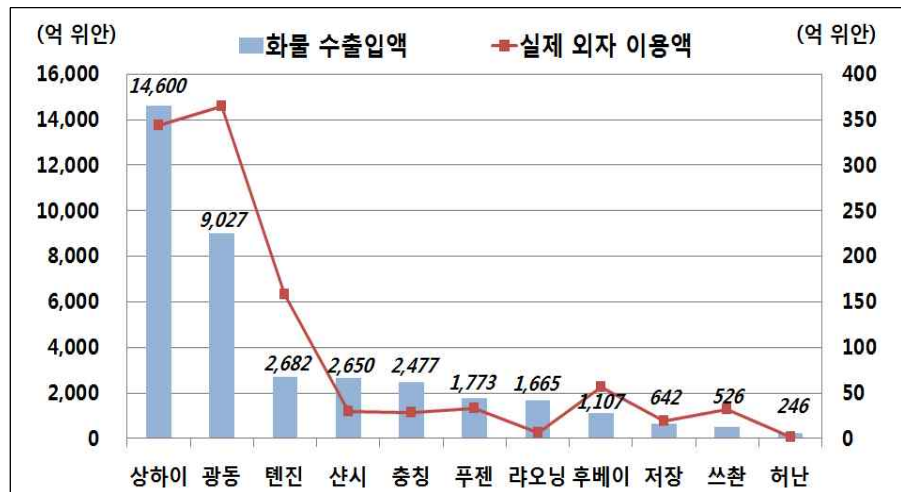
No.	자무구	화물 수출입액	실제 외자 이용액
1	상하이	14,600.0	343.3
2	광둥	9,026.7	364.4
3	텐진	2,681.8	158.3
4	산시	2,649.8	29.1
5	충칭	2,477.5	28.9
6	푸젠	1,773.4	33.5
7	랴오닝	1,665.2	6.4
8	후베이	1,107.5	56.3
9	저장	642.2	19.6
10	쓰촨	525.5	32.2
11	허난	245.9	1.4
자무구 합계		37,395.4	1,073.2
중국 전체		305,050.0	8,856.0

주: 자무구 순서는 수출입액 순  
 자료: 「2019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발전보고」 및 국가통계국 자료.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를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수출입 및 외자 이용액



주: 2018년 10월 설립된 하이난 자무구는 제외.

자료: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2019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발전보고」 및 국가통계국, 「2018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공보」, 2019. ; KMI 작성.

### 2018년 중국 11개 자무구의 화물 수출입액은 중국 전체의 12.3%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운영된 11개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의 화물 수출입은 총 37,395억 위안으로 2018년 중국 전체 화물 수출입액(30조 5,050억 위안)의 약 12.3%를 차지했다. 11개 자무구(2018년 신설된 하이난 제외) 중에서는 상하이 자무구가 14,600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광둥, 텐진, 산시, 충칭 등의 순이었고, 허난 자무구가 245.9억 위안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2018년 11개 자무구의 실제 외자 이용액은 총 1,073.2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외자 이용액(8,856억 위안)의 12.1%를 차지하여 화물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했다. 각 자무구별로 보면, 광둥 자무구가 364.4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하이, 텐진, 후베이, 푸젠 등의 순이었으며 역시 허난 자무구가 1.4억 위안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각 자무구들은 해당 지역 외자 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텐진 자무구의 면적은 전체 텐진시의 1%에 불과하지만, 2018년 전체 시의 1/4에 해당하는 외자를 유치했다. 후베이 자무구도 후베이성 면적의 0.065%이지만, 후베이성 외자 유치의 31%를 담당했다.

중국 자무구는 지속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 축소, 외자기업 설립의 행정 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외자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지수 동향

####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4	11-15
종합지수	841.78	834.87
일본 항로	706.33	726.90
구주 항로	1,075.74	966.06
미서부 항로	719.47	706.48
미동부 항로	894.38	887.68
한국 항로	595.61	556.66

주 : '01-04'는 2019년 1월 4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구분	01-04	11-15
종합지수	1,067.11	1,113.76
석탄	1,096.03	1,121.43
곡물	923.87	1,025.25
금속광석	1,040.00	1,090.57
정유	1,310.58	1,546.68
원유	1,557.48	1,557.48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2013년 9월 18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최초로 설립되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试验区, 이하 ‘자무구’<sup>1)</sup>)가 개혁 추진과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는 ‘시험지대’로서 ‘복제(벤치마킹)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노하우(可复制, 可推广的经验)’를 쌓을 것을 주문했다<sup>2)</sup>. 이렇듯, 자무구는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중국의 개혁과 혁신 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그 정책 실험의 노하우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다.

지난 호의 ‘이슈 포커스’에서 2019년에 발표된 중국 자무구의 지역적인 확장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올해 발표된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그 사례들 중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2019년 중국 자무구 벤치마킹 혁신 제도

2013년 상하이 자무구가 설립이후 국무원 및 기타 관련 부처에서는 자무구에서 시범실시된 개혁 노하우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타 자무구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중 중국 국무원은 올해 4월까지 5차례(1차례는 사례 발표)에 걸쳐서 전국 범위로 복제·보급(벤치마킹) 가능한 혁신 조치들을 공표해 왔으며, 5차례의 발표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총 101개의 개혁조치와 8개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sup>3)</sup>.

[표 1]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자무구 벤치마킹 혁신 조치 문건

일시	관련 문건	수량
2014.12	「중국(상하이) 자무구의 복제가능한 개혁 시범실시 노하우 보급에 관한 통지」	34
2015.11	국무원 자무구 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전국 자무구 8개의 가장 실행에 적합한 사례”	8
2016.11	「자무구 새로운 제1차 개혁 시범실시 노하우의 복제보급 업무에 관한 통지」	19
2018. 5	「자무구 제4차 개혁 시범실시 노하우의 복제보급 업무에 관한 통지」	30
2019. 4	「자무구 제5차 개혁 시범실시 노하우의 복제보급 업무에 관한 통지」	18

자료 : 孙元欣, 『2019中国自由贸易试验区发展研究报告, 2019.』, 国务院, 『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五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 2019.5.

- 1) 자유무역시범구(自由贸易试验区)는 ‘시범실시’한다는 의미의 ‘시험(试验)’이란 글자가 더해지면서 관련 정책들을 실험하고 시범 실시하는 곳임을 의미하며, 영문으로도 ‘Pilot Free Trade Zone’으로 표현되어 ‘시험하다’라는 ‘Pilot’이란 표현을 사용함. 본문에서는 편의상 ‘자유무역시범구’로 지칭함.
- 2)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09/27/content\\_4036.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3-09/27/content_4036.htm), 2013.9.
- 3) 국무원 외에도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품질검사총국(质检总局) 및 자무구가 속한 지방 정부 등에서 이러한 혁신 조치 노하우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으며, 2013~2018년까지 각 관련 부처들이 발표한 혁신조치 노하우들은 53개 항목에 달함,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2019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발전보고』, 2019.3.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2019년 4월에도 국무원은 「자무구 제5차 개혁 시범 실시 노하우의 복제 보급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五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를 통해, 총 18개의 벤치마킹 조치들을 발표했으며, 발전개혁위원회, 사법부, 교통운수부, 세관총서 등 관련 부처들을 책임 부처(负责部门)들로 지정했다. 그중 교통운수부와 세관총서를 책임부처로 하는 조치들은 주로 선박 운송, 통관 편리화 등에 중점을 둔 8개 조치이며, 그 적용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2019년 교통운수부·세관총서가 책임 부처인 벤치마킹 조치 주요 내용

No.	조치(책임 부처)	구체적인 내용
1	선박 안전검사 선박선별 스마트 체계(교통운수부)	선박을 안전관리 위험에 따라 분류하여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선박 현장감독검사의 맞춤형 관리능력 및 선박의 사중(事中)·사후 현장감독 능력을 제고함
2	해운 위험물 검사 정보화, 선박 적재 위험화물 및 오염·위험성 화물 합병 신고(교통운수부)	위험화물이자 오염 위해성 화물에 속하는 선적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온라인 합병 신고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해사부문에서는 통합 접수를 실시하여 선적 위험화물 비교 기능을 실현하고, 스마트 해사 안전방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정보를 위험물 리스트와 비교 선별하여 법 집행자에게 의사결정정보를 지원함. 결재작업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함
3	국제운항 선박의 출입경 통관 전 과정에서 '1개 서류로 여러 신고(一单多报)'(교통운수부, 세관총서, 이민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국가표준버전의 운송수단(선박) 신고시스템에 따라, 기업들은 선박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해 국제운항선박의 입출국 통관 전 절차인 '단일창구' 온라인 신고·허가를 실현. 기타 '선박 출항허가증'의 자체 출력기능 실현. 선원 출입국 증명서, 임시 입국 허가 신청 명단 외에, 통상구의 감독·관리부서는 원칙상 기업에게 다른 종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4	보세연료유류의 다른 항만구역 공급 모델(교통운수부, 세관총서)	급유업체는 규정에 따라 국내 수로운송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항만구역에서 선박을 공급하는 업체 신청사항에 대해 공유하여, 공급업체가 두 지역의 해사·세관부문에 신고를 진행한 후, 두 지역 범위에서 보세연료유류의 직접 공급작업이 가능함
5	세관업무 예약 플랫폼(세관총서)	국제무역 '단일창구'에 의거해 세관업무예약 플랫폼을 개발(이동식 버전포함),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관에 검사처리 등 업무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결과도 확인 가능
6	수입 곡물 검역 전과정 감시(세관총서)	'인터넷+전과정 감시' 업무모델을 혁신하여, 인터넷 기술과 정보화 CCTV 모니터링 수단을 통해 신고부터 정박지 검역, 하역, 저장, 운반되는 수입 곡물의 검역 전과정을 감독·관리함
7	수입 곡물의 강해복합 운송 검역 감독·관리 조치 최적화(세관총서)	수입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운반적합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강으로 진입한 선박은 운반 단계에서 유출(중량감소) 및 전염병 유출 리스크를 방지함
8	수입 보세유 검사 감독·관리 제도(세관총서)	안전·위생·친환경의 감독 기반 하에, 신용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통관관리 조치를 실시하며, 높은 신용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수량·중량 검정, 품질 점검 감독을 간소화함. 수량·중량검사에서는 화물 유동 방식에 따라 차별화된 통관감별 조치를 마련하여, 재수출되는 보세유에 대한 신고 관리, 수출입 상품검사 감시기관의 점검결과를 채택함. 중계 수입된 보세유에 대해서는 일반무역 수입에서 실시되는 법정 검사 및 수량·중량 검정에 따라 실시함. 품질검사 측면에서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의 중계 수입 횟수가 많고, 간격이 짧으며, 품질이 안정적인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빈도를 낮추고, 보세유 저장운송기업과 통관사를 세관의 중립된 기업 신용관리제도에 포함시키고, 기업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세관감독관리를 실시함.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에 대해서 보세유 중계 수입의 '집중 검사, 분할 확인(핵소)', 현장 검역식의 신속한 검역, 우선처리 통관 수속 등 편리화 조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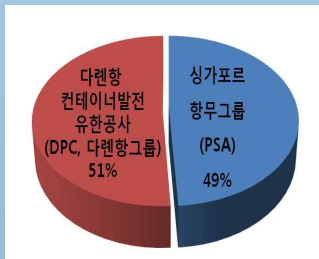
자료 : 国务院, 「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五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 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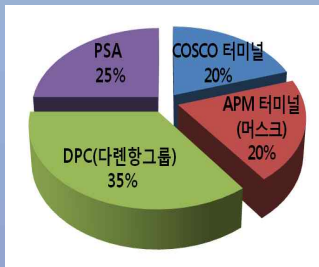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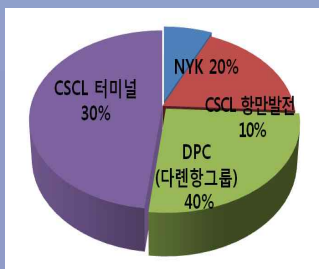
- 1기 다롄 컨테이너터미널 유한공사 (DCT, '96.6. 설립) 지분 구조



- 2기 다롄항 컨테이너터미널 유한공사(DPCM, '04.9. 설립) 지분 구조



- 3기 다롄 국제컨테이너터미널 유한공사(DICT, '07.10. 설립) 지분 구조



주 : CSCL 항만발전과 CSCL 터미널은 COSCO와 합병 전 차이나쉬핑의 자회사.

그 밖에도 국무원과 관련 부처, 자무구가 속한 지방 정부들은 수시로 각 자무구의 우수한 혁신정책 사례들을 선별하여 대외 공표하고 있다. 2019년 7월에도 국무원의 자무구 부처간 연석회의 사무실에서는 「자무구 제3차 ‘최적의 실천 사례(自由贸易试验区第三批最佳实践案例)」(이하 「제3차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상하이, 광둥, 저장, 후베이, 산시, 랴오닝 등 자무구에서 선별된 31개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sup>4)</sup>. 이하 본문에 소개된 4개의 사례는 상기 「제3차 실천사례」의 31개 사례 중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 주요 사례들이다.

## 2 사례 1 :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통합(랴오닝)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대형 정기선사들의 해운 얼라이언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박도 나날이 대형화되고 있다. 다롄항그룹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롄 다야오완(大窑湾)항 제 1~3기 컨테이너터미널들의 규모적인 한계, 야적장 이용의 불균형, 서비스 수준의 차이, 상대적으로 높은 터미널 운영비용 등 컨테이너 업무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야오완 항 1~3기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의 지분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 1. 추진 방법

#### (1) 방안 설계

과거 다롄항그룹은 국내외 기업들과 합자를 통해 다야오완 1~3기 터미널 운영사를 설립했다. 이 3개의 합자 터미널 운영사의 지분 구조는 각기 달랐으며(좌측 참조), 지분 비율 차이, 각 주주별 통합 요구조건 차이, 총자산 가치, 경영환경 및 마진을 등의 차이가 비교적 컸다. 또한 2기 터미널에 투자했던 머스크그룹(APM 터미널)은 글로벌 전략 조정에 따라 퇴출을 요구하는 등 1~3기 터미널의 지분 통합은 그 난이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다롄항그룹은 기업의 포지셔닝, 업계 특성, 발전 단계, 경쟁 환경, 제약 조건 및 핵심 문제 등을 결부시켜 채무, 세무, 법률, 업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흡수 합병, 신설 합병, 지분 출자, 자산 출자 등 모두 10여 개의 지분 통합 방안을 도출하였다. 통합 방안 설계의 합리성을 위해, ‘1개의 주체’, ‘최대의 세수 우대’, ‘종합적인 편익’, ‘통합의 시간적 요구 만족’이라는 4개의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통합 방안을 비교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1기 터미널 운영사가 나머지 2~3기 터미널을 지분을 흡수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1기 컨테이너터미널이 존속 주체가 되어 나머지 터미널의 자산, 업무, 채권·채무 및 직원을 모두 승계하게 되었으며, 이 방식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신규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4) 商务部外国投资管理司, 「国务院自由贸易试验区工作部际联席会议办公室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第三批“最佳实践案例”的函」, 2019. 7.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2) 방안 실행

지분 통합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각 주주 측은 통합에 관한 의향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통합 프로젝트는 아래 [표 3]의 3단계로 추진되었다.

[표 3] 다렌 다야오완 터미널 운영사 지분 통합 단계

제1단계	2단계	3단계
주주 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관리 모델을 명확히 함. TF팀은 자문, 회계, 평가 등 중개기관 입찰 사업을 담당하고, 흡수 합병 방안을 마련하여 각 주주 측의 확인을 거침. 3개 터미널 운영사의 회계, 평가 작업을 완료하며 후속 비즈니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합병 협의에 관한 핵심사항을 의결하고, 동시에 지분 통합과 머스크의 퇴출을 위한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함. 각 주주들은 약 반년에 걸쳐 지분 비율, 이사회 의석 수, 의사 규칙, 임원 배치 등 핵심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문건을 체결하고 반독점심사 부문 및 관할 정부 관련 부서에 사업 허가 및 보고를 진행함	신규 운영사의 운영준비팀을 구성하여 통합 전·후 직원, 재정, 물품 등의 인수 작업을 사전에 시작하여 터미널의 끊임 없는 순조로운 운영 확보

### (3) 정부 지원

이 통합 프로젝트는 다렌항그룹이 추진한 국유기업 심화 개혁의 중점 사업으로 다렌시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펼쳤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적법한 범위에서 통합 작업을 위한 ‘녹색 통로’를 개설해 심사 기간을 단축시켰다. 이번 지분 통합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관계로 경영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을 해야 했고, 반독점 심사 부문에도 승인을 요청해야 했다. 대량의 승인 요청 서류들을 단기간 내에 준비했으며, 주관 부서의 빠르고 효율적인 심사·승인을 받아 신생 터미널 운영사가 신속히 설립되도록 도왔다. 결국 각계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통합 프로젝트는 가동 1년 만에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지분 통합을 이룬 컨테이너터미널이다.

### (4) 경험 결산

**가. 프로젝트 관리 모델** 이번 터미널 통합 프로젝트는 각 주주측 내부 의사 결정 절차의 제약 뿐 아니라, 반독점 심사, 신규 터미널 운영사의 공상 등기 변경 및 정부 심사 절차에 영향을 받았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다렌항그룹은 항만 운영·관리 전문인력, 자문기구·세무·법률 전문인력, 주주측 투자 관리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축하여, 통합 프로젝트 가동 초기와 지분 인수 이후에 각각 다른 프로젝트 관리 모델을 적용하였다. 프로젝트 가동 초기에는, 각 주주 측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된 주주측 리더 그룹과 다렌항그룹 프로젝트 인력을 핵심으로 하는 TF팀의 ‘공동 사무팀’을 구성하여 정보의 충분한 교류, 문제 해결, 빠른 합의를 이루게 했다. 동시에 자문기구가 통합 전 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기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문기구가 낸 방안은 각 주주측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작용되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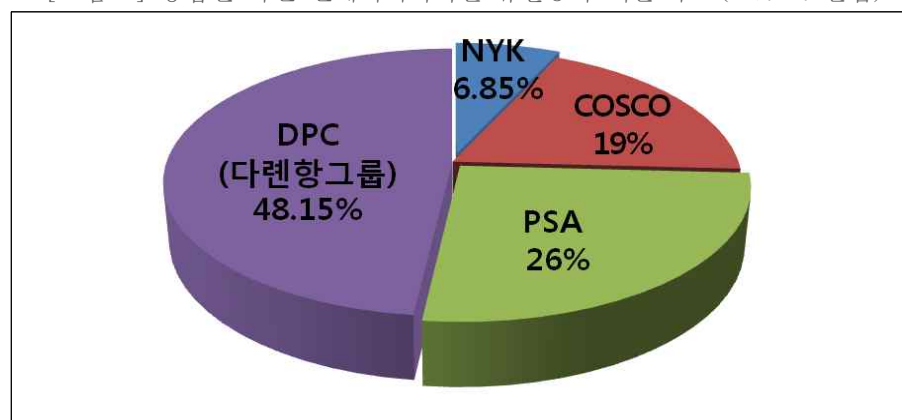
지분 인수단계에서는 적시에 신규 운영사 준비 팀을 구성하고 기획 준비팀 (리더 그룹)은 향후 신규 운영사의 임원으로 구성했으며, 준비 실무팀은 신규 운영사의 부서장들로 구성하여 기획팀과 준비 실무팀이 통합 작업을 끝까지 공동으로 추진하게 했다.

**나. 주주 비즈니스 협상.** 다롄항그룹의 핵심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각 주주 측과 이해 관계자의 기본 의견을 종합하여 각 측 주주와의 시장화된 비즈니스 협상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평가 방식 선택, 평가 결과확인 작업에 대해 주주 각 측은 공동으로 입찰서 작성 및 확인, 공동 입찰팀 구성, 감사 평가기구에 공동 위탁을 하여, 후기 3사의 평가 가치의 승인에 유리하게 했으며, 이사회 의사 규칙 및 이사회, 감사회, 임원 배치 등의 사항 등을 최대한 단축하였다. 의사 규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의사 결정사항은 통합 후 합자 회사 경영진이 협의를 통해 주주 간 협상이 더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했다.

**다. 프로젝트 리스크 통제.** 이번 터미널 통합 프로젝트는 주주협상, 통합 프레임 방안 제정, 자산심사 평가, 반독점 심사 등 많은 단계를 거쳤으며, 주주협상 단계에서는 반드시 머스크그룹의 퇴출 지분 인수 및 3개의 운영사를 1개로 만드는 2가지의 비즈니스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준비하여 추진했다.

첫째, 터미널 지분 프로젝트 통합 차원의 의사결정과 터미널 업무 운영 차원의 의사결정 부문의 통합이다. 둘째, 머스크의 지분 퇴출 비즈니스 협상과 터미널 지분 통합 비즈니스 협상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외부 심사의 승인 과정과 내부 운영 준비 과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리스크 통제 체계를 갖추어 각 프로젝트 기간 단계에서의 작업들을 계획된 대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각 항목, 각 분야별로 긴밀하게 연결토록 했다. 다롄시 정부, 업계 주관 부문 및 관련 주주들의 강력한 지원 아래, 2017년 8월 10일, 통합 협약식이 성공적으로 거행되었고 그해 11월, 통합 후의 신규 운영사인 ‘다롄 컨테이너터미널 유한공사’는 운영을 재개했다. 터미널의 지분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다롄항 컨테이너발전유한공사(DPC) 48.15%, 싱가포르항무그룹(PSA) 26%, COSCO그룹 19%, 일본의 NYK사 6.85%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통합된 다롄 컨테이너터미널 유한공사 지분 구조('17.11. 설립)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2. 실행 효과

이번 터미널 통합 프로젝트는 시장화 매커니즘을 십분 활용하여 중국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통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항만의 다각화된 지분 통합의 이정표로서 향후 터미널 지분 통합의 물꼬를 텃다. 다렌 컨테이너터미널은 지분 통합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운영했으며, 적절한 인력배치와 충분한 시간적 여유로 관련 세제 지원 혜택을 받았다.

통합 후 기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신규 터미널의 야적장 면적은 226만 km<sup>2</sup>, 안벽을 따라 18개 컨테이너 전용 선석이 배치되었고(현재 14개 가동 중), 이중 20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정박 가능한 심수 선석은 5개이다. 전세계 100여개의 항로가 운영되고 160여 개 국가, 300여 개의 항만과 연계된다. 자원 공유, 배치 최적화, 자산 활성화 등의 조치 등을 통해 다렌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원가는 연간 5,000만 위안이 절감되었다. 선박 도착 즉시 접안률도 6% 제고되었으며, 고객의 업무 처리 효율은 10% 향상되었다. 또한 제15회 ‘중국 화물운송업 대상’ 선정에서 ‘최고의 화물집하·배분서비스 컨테이너터미널’, ‘친환경 발전 특별 공헌상’, ‘종합 서비스 베스트 10 컨테이너터미널’ 등 3개 항목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3 사례 2 :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 모델(허난)

허난 자무구 정저우(郑州)지역 세관 감독부서는 ‘거래의 진실성을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로 하는 감독·관리 원칙에 따라 세관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사전 리스크 예측 강화, 사중(事中) 진실성 검증, 사후 차별화 관리를 통해 규범화된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사전·사중·사후 감독관리 모델을 구축했다.

## 1. 추진 방법

(1) 리스크 예측을 핵심으로 하는 사전 관리모델 수립

가. 기업 진입 관리. 사전에 진입 기업의 자질검증 제도를 수립한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영 현황, 인터넷 사이트, 공급체인 프로세스 등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기업을 선별한다.

나. 상품 진입 관리. 전자상거래 기업을 개별 관리대상으로 하여, 세관의 10자리 HS코드에 따라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跨境电商零售进口商品清单)」와 비교하여 품명, 분류가 혼동되기 쉬운 상품들을 전반적으로 선별한다. 고위험군 및 제한 품목의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상품의 시장진입 리스크를 낮춘다.

(2) 거래 진실성 검증을 핵심으로 하는 사중 관리모델 수립

가. 서류 심사. 전자상거래의 3가지 서류 정보(주문서, 지급전표, 물류송장)의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진실성 검증 및 소비자 신원 정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의 일선 세관 수입 신고서(신고[备案] 리스트), 해외직구 수입 신고 리스트, 구매인 신상 정보 및 구매 한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입수하여 대조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거래 진실성의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나. 세수 관리.**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세수 관련 규범화된 신고, 같은 명칭이지만 다른 품목의 상품 재심사, 신고 가격의 정확성 및 규범성 검사, 신고 리스트의 감정평가 작업 등을 통해 세수유실을 방지한다.

**다. 검사 관리.** 해외직구 수입 및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등 각기 다른 모델에 대해 일선 세관에서 자무구(보세구) 내 반입 시 세관 신고서, 신고 리스트 및 보세구 진출입 허가증(核放单)에 대해 구분하여 검사하고, 서류와 실제 상품이 대조·확인 및 세수 리스크를 방지한다. ‘2번의 무작위 검사’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리스크 평가 및 중등·고등수준의 리스크를 지닌 기업에게는 비교적 높은 검사율을 적용한다.

**라. 물류 모니터링.** 스마트 게이트 및 CCTV 모니터링 지휘센터를 중심으로 게이트의 유형별 통로 설치, 정기적인 구역 순찰 및 모니터링 관리 등을 통해 보세구 내 물류과정을 추적 가능하게 하고, 불법 기업 차량에게 하도급 및 밀반입하는 행위를 억제한다.

**마. 장부 관리.** 개별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 장부를 기초로 한 국제 전자상거래 전용 장부 관리를 실시하여, 상품의 수입, 수출, 환적, 보관 등 전 과정 데이터를 추적 가능케 한다.

**바. 판촉 행위 보고 관리.** 전자상거래 기업의 판촉 활동에 대해 사전 신고, 사중 거래 모니터링 및 사후 분석 등을 통해 상품 가격, 종류, 수량 등 운영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해 저가 신고로 인한 세수 탈루 위험을 낮춘다.

(3) 온라인 순찰, 빅데이터 분석을 핵심으로 하는 사후 관리모델 수립

**가. 온라인 순찰.** ‘미스테리 바이어(神秘买家)’ 검사와 정기적인 사이트 조사의 2가지 방식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의 거래 진실성을 점검하고, 업체가 허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허위로 거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운송료·보험료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한다.

**나. 재고조사 관리.**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 재고 조사, 기업 자체 재고 조사 및 제3자 재고 조사를 통해 세관의 샘플 추출 검사와 결합하여 업체의 재고 수량에 대해 조작 행위를 발견한다.

**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주문인, 지불인, 수취인, 상품, 가격 등 각종 시스템상의 신고 요소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분석 모델을 통해 일정한 논리 관계를 근거로 저가 신고 존재 여부, 허위 거래 등 밀수행위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라. 정확한 기업 이미지 수립.**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정보, 거래 데이터 등의 전면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대해 리스크 등급을 구분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하고 차별화, 맞춤형 리스크 분석 및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마. 기업 차별화 관리.**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나누고, 서로 다른 신용등급의 기업 신고 서류에 대해서 전자 검사 혹은 인력을 통한 검사, 검사율, 재고 조사 주기, 세금담보 형식 등에서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바. 동태적인 리스크 감시·관리.**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의 과거 위법 행위 기록, 핵심 상품 및 특정 시기 감독, 소비구매 논리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상품, 소비자에 대해 인력을 통한 검사, 감정 등 동태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 2. 실행 효과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모델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범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기업 외의 나머지 기업은 퇴출시켜 전자상거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감독·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점진적 구축과 보완에 따라 정저우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는 안정적으로 질적 발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정저우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저우 세관 누적 국제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는 모두 12,132.6만 건으로, 상품 금액은 155.6억 위안, 세금 징수액은 17.4억 위안에 달한다.

### (1) 사전 진입 리스크의 효율적인 예방

세관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시장진입 단계에서 위험 부분을 즉시 발견 및 대응하고, 위험 부분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의 리스크를 낮춘다. 2018년 모두 91개의 전자상거래 기업, 22개 결제기업, 21개 물류기업이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39개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

### (2) 기업의 합법적인 통관 촉진

통관, 검사, 물품 관리 등의 단계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새로운 관리·감독 모델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했다. 통관 절차에서 정저우지역 38개 중등·고등 위험군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관련 인력을 동원하여 직접적인 심사로 대응하였다.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저가 신고 혐의가 적발되어 17개 기업이 상담 및 영업 정지 명령 등을 받았다. 검사 단계에서는 기업 리스크 분석에 대하여 일선 세관의 수입 신고서의 검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물품 관리 부분에서는 진입 게이트에서의 샘플 추출 검사를 모든 기업에게 전면적으로 실행했고, 차량의 보세구 반출업무를 규범화했다. 이미 등록을 마친 1,536대의 차량이 전자상거래 기업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 (3) 사후 리스크 제어 능력 제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감독·관리 수단을 통해 재고 관리, 데이터 분석 및 응용 등에서 리스크 제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두 84개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재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손 부분에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대해서는 추가 세금 부담 및 인도 처리 등을 조치했다. 리스크 데이터 분석 및 응용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30여 개의 위험 분석모델을 구축했고 기업경영 리스크 이미지(画像)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 (4)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저우 세관은 국제 전자상거래 경로를 통한 밀수사건 6개를 입건 처리하였으며, 그 상품 총 금액은 3억 위안, 전체 2,700만 위안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저우 세관은 국제 전자상거래 사회 협동 관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사건을 성급 인민은행, 관련 행정관리 부문과 공동으로 위법 택배·결제 기업을 처리했으며,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 4 사례 3 : 철도 B/L 신용융자 결제(충칭 자무구)

철도 B/L(철도화물상환증, Railway B/L) 융자 결제는 충칭 자무구가 육상무역 규칙화를 모색하데 있어서 중점 내용으로, 국제 통행규칙 준수, 기업의 비용 절감 및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철도 B/L 신용융자와 결제는 무역기업이 해상운송의 국제무역 관행에 따라, 국외의 무역 파트너와 대등하게 거래하고 금융 수단을 이용하여 더 큰 규모의 무역을 가능케 하였으며, 철도 운송의 전통적인 융자 방식이 담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문제 등을 해결했다.

### 1. 추진 방법

#### (1) 전통적인 철도 운송장에 물권(物權) 속성 부여

해운 B/L 을 참고하여 철도 B/L을 혁신하고, 철도 B/L 규칙을 제정 및 발급, 철도 B/L 발급, 화물의 유통관리 등의 단계에서 효력을 보장하며, 철도 B/L이 권한을 지닌 증권으로 화물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가능케 한다.

#### (2) 직접적인 법률 지원 체계 구축

「계약법(合同法)」 및 무역 법규에 기초하여, 무역 참여자 각 측이 공동으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준수하는 ‘약정’ 규칙을 제정하며, 철도 B/L 이 포워드 측의 물품 인도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에 대한 약정을 준수한다.

#### (3) 철도 B/L 화물 관리·통제 시스템 완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운 모델을 참고하여, 화물은 화물 포워드측이 관리·통제하여 운송하고, 화물권(B/L)은 은행이 통제·유통하는 분리된 채널을 구축하여 화물과 화물권이 운송 단계에서 분리되고, 경내에서 인도되는 단계에서 다시 병합되는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4) 중국·유럽 정기 화물열차(中欧班列) 계약운송인의 책임 확정  
포워더 측이 국제 운송, 보관, 안전 및 화물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며, 철도 B/L 원본이 경내에서 화물 인도의 유일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한다.

(5) 철도 B/L에 금융 속성 추가  
철도 B/L을 담보부 어음으로 운용하여 중국·유럽 정기 화물열차의 B/L 용자 기능을 발전시킨다. 철도 B/L은 국제 신용장, 추심, 송금 등 각종 결제 및 무역 용자 업무에 활용되며, 중국·유럽 정기 화물열차 물류업무의 결제 및 용자 방식을 변화시킨다.

(6) 공공 플랫폼 구축으로 육상무역 규칙 모색 및 물류금융 혁신 추진  
2017년 10월 25일, 충칭시 정부는 혁신형 종합 지방 금융기구인 ‘충칭 물류금융 서비스 주식회사(重庆物流金融服务股份有限公司, 이하 ‘충칭 물류금융’) 설립을 승인하였다. 충칭시가 육상 무역규칙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충칭 물류금융은 철도 B/L을 만들고, 중국·유럽 정기 화물열차(충칭) 포워더와 전략적 협력협의를 체결했으며, 실제 기업들에게 용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 용자 효율 및 성공률을 제고하고 용자 비용을 낮추어 금융 서비스 혁신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 2. 실행 효과

2017년 12월 22일, 충칭 물류금융의 철도 B/L에 의거하여 충칭 시노트란스(重庆中外运)와 공상은행 충칭 지점이 협력하여 최초의 철도 B/L 국제 신용장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시노트란스와 충칭 물류금융은 이미 철도 B/L 31건을 발행했으며, 용자 및 결제된 수입 화물액은 약 5,163억 위안에 달한다. 철도 B/L은 신용장, 추심, 송금 등 각종 결제 방식의 용자 결제에 사용되며, 중국·유럽 정기 화물열차의 수입 완성차, 목재, 식품, 분유, 신선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 화물 병행수입에 사용된다. 전통적인 철도운송 용자 모델과 비교하면, 철도 B/L 신용장 용자 모델은 뚜렷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 (1) 육상 무역의 이익 구도 변경

충칭 물류금융이 만든 철도 B/L은 실제로 화물의 컨트롤(관리·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은 철도 B/L을 약정서로 하여 중국 내의 수입기업에게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용장 결제 방식 하에서는 일부 역량이 약한 수입기업들도 무역 협상에서 더욱 주동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2) 전통적인 국제 육상무역 용자 방식의 변경

은행은 철도 B/L의 화물 관리·통제 기능을 바탕으로 중국 내 수입기업에게 국제 신용장을 개설해주어, 철도 운송의 수입업무에 용자 지원을 제공한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3) 전통적인 국제 육로 무역 결제 방식의 변경

국제 신용장은 육상무역에 은행의 신용을 부여하여, 과거 선금 후 물품 수령의 결제 방식을 변경했고, 수입기업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수입업무의 리스크를 줄였으며, 대규모 수출입 무역을 촉진시켰다.

### (4) 현행 국제 철도화물 운송 규칙과 상호 연계

충칭시의 철도 B/L은 현행 국제 철도 운송장과 기능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상호 충돌과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철도 운송장의 수취인을 화물 운송대리인으로 약정하고, 철도 B/L 규칙과 현행 「국제 철도 화물 복합 운송 협정(Agreement On International Railroad through Transport Of Goods)」과 「국제 철도 화물 운송 공약(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과의 연계를 실현했다.

### (5) 철도 B/L 규칙 및 화물 통제 기능에 대한 은행 및 기타 주체의 인정 획득

해운 B/L 기능을 육상무역에 적용한 것으로, 대상화물이 명확하고 가격 판단이 간단하며, 규칙 체계가 성숙하여 각 주체의 수용 및 해외 시장에 보급도 유리하다. 관련 약정을 통해 철도 B/L은 포워드 측 화물 인도의 유일한 증빙 서류이며, 각 측의 인정을 얻어 철도 B/L의 화물 통제기능을 보장하였다. 해운 B/L을 참고하여 수립한 철도 B/L 규칙은 'UCO 600'과 같은 국제 관행과 효과적으로 연계 할 수 있으며 인민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및 초상은행 본점 등은 충칭의 시장조사를 거쳐 철도 B/L을 이용한 국제 무역 용자 및 결제를 지원했으며, 중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도 경내 은행이 철도 B/L 용자 및 결제 협력 확대에 동의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기관 및 독일의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등 유명 물류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 (6) 원스톱 순환 국제 육상무역 금융 서비스 모델 개발

화물이 통관되면 자격을 갖춘 물류기업이 창고 보관과 저장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물류동산 용자 기능을 부여하여 화물이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 판매되는 전 과정에서 용자를 실현하며, 일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용자 문제를 해결했으며, 폐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으로 자체 상환하는 등 은행이 가진 신용 리스크를 낮췄다.

(7) 충칭시 사법기구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철도 B/L의 법리적 기초,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도 B/L을 「물권법(物权法)」 제 223조 규정에 속한 'B/L'의 한 유형으로 해석 가능하며, 권리 담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철도 B/L에 물권속성을 부여하는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 5 사례 4 : '테인통'철도 운송장 금융화 혁신(쓰촨 자무구)

쓰촨 자무구는 철도 화물 운송을 현대화된 물류로 발전 촉진, 실제 기업의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여 철도 운송 업계와 금융업계의 업계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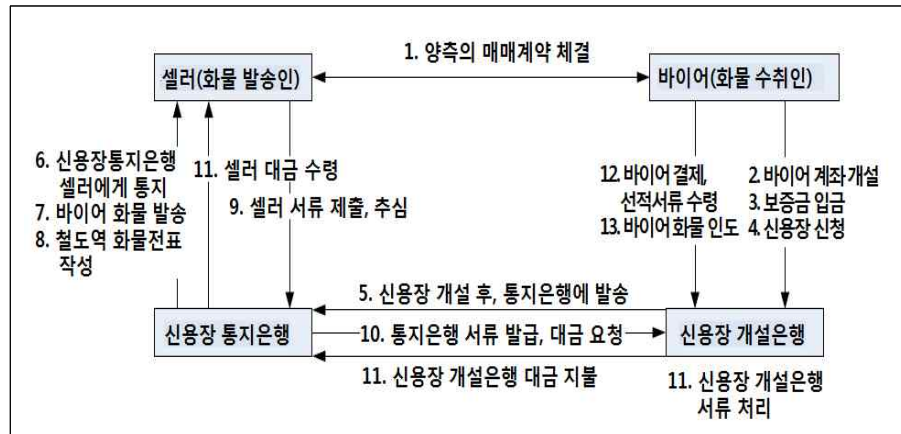
### 1. 주요 방법

철도 운송은 국내 철도운송과 국제 철도운송의 2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국내 철도운송은 철도화물 운송장(铁路货物运单, 이하 ‘철도운송장’)을 사용하며, 국제 철도화물운송의 경우 국제 철도 복합연계운송 운송장(国际铁路联运运单, 이하 ‘국제 연계운송장’)을 사용한다. 중국 철도 청두국그룹유한회사(中国铁路成都局集团有限公司, 이하 ‘청두국그룹’)는 각각 국내·국제 양방면에서 철도 운송 증표가 화물 통제 가능성이 있음을 이용하여, 금융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고, 철도운송장의 금융화를 실현한다.

#### (1) 중국 최초의 화물 운송장 금융화 혁신 시범실시

2017년 9월, 청두국그룹과 중국은행 쓰촨 모 지행은 많은 연구 끝에 철도운송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신용장 ‘단일서류’ 교역 방식 시범실시 규칙 프로세스(国内信用证“一单制”交易模式试点规则流程)」(이하 ‘테인통[铁银通]’)을 공동 설계하였다.

[그림 2] ‘테인통’ 프로세스



이 규칙에 의하면, 청두국그룹과 중국은행의 쓰촨 모 지점은 징지우역(经久)을 거쳐 따완전(大湾镇)역까지 운행하는 강제 운송을 시범운송 케이스로 설정하였다. 청두국그룹은 교부 절차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 열차역에 「청두철도국 철도운송 복합 운송 ‘단일서류’ 금융화 혁신 시험 업무의 통지(成都铁路局关于开展铁路运单多式联运“一单制”金融化创新试点工作的通知)」를 전달하여 관련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7년 9월 ‘철도+도로’의 연계 운송을 완성하였다. 이 지점은 화물운송장(수취증명)을 화물 통제권리의 증빙 서류로 하여 화주에게 국내 신용장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2) 중국 최초의 국제 연계운송장 금융화 혁신 시범실시

국제 연계운송장 하의 국제 신용장 결제 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하여, 청두국 그룹은 중국은행과 다시 협력하여 공동으로 국제 철도화물 복합연계운송의 「국제 신용장 ‘단일서류’ 거래 모델 시범 지역 규칙 절차(国际信用证“一单制”交易模式试点规则流程)」을 만들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청두로 수입되는 목재를 대상으로 하여, 목재 수출회사를 수출업자로, 쓰촨성 복합연계운송 투자발전유한공사(청두국그룹 및 쓰촨 청위고속도로, 청두 거래그룹이 합자 설립)을 수입자로, 쓰촨 내 중국은행 모 지점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중국은행 모스크바 지점을 신용장 통지은행으로 하여, 국제 연계운송장 금융화 혁신 시범을 전개하였으며, 2018년 8월에 실시되었다.

## 2. 실행 효과

### (1)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물류비용 저감

철도운송에서 엄격하고 완벽한 화물 운송, 지불 방식을 갖추었고, 화물 운송의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관리·통제와 완전한 규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테인통’을 통하여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이 우수한 기업을 위한 복합운송 윈스탑 솔루션과 새로운 무역 결제, 융자수단, 기업 자금의 원가 절감, 물류 효율성 향상,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쓰촨성 복합운송 투자발전 유한회사는 청두국그룹과 중국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국제 연계운송장 금융 시범 수입기업으로서, 중국은행에서 1억 위안의 여신 한도를 획득하였다.

### (2) 물류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및 철도운행 횟수·수익 증가

철도 운송장 금융화 혁신은 철도 운송 계약과 무역 결제의 일반 운송장의 한계를 타파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운송과 금융 서비스의 벽을 허물고 철도와 은행이 상품 및 파생 서비스를 결합하여 고객에게 기본적인 운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단일 운송장으로 복합운송 서비스 전 과정을 커버하며 포괄적인 물류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 통제권을 기초로 하여 물권 증빙 속성까지 갖추어, 고객에게 ‘금융+물류’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확대에 의의를 가진다.

### (3) 전반적인 예방 능력 제고, 공동 이익 실현

철도 운송장 담보는 철도 운송장을 유일한 화물 컨트롤 증빙 서류로 하며, 금융기구에 있어서 국내, 국제 신용장 ‘대금 지불, 선적서류 회수(交款赎单)’ 제어 부분에서 실험적인 의의를 지니며 신용장 등 다양한 무역결제 방식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철도 운송, 금융기구, 실제 기업이 시장, 정보, 업무 등에서 다 차원적 혁신적 협력을 위하여 공동 이익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국제 육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금융적인 가치를 지닌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5 시사점

2013년 상하이 자무구가 최초로 개설된 후 현재까지 중국에는 총 18개의 자무구가 설립되었다. 중국의 자무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입주 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무구의 지역적 확장 및 제도도 갈수록 성숙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무구를 중국 진출의 하나의 발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본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기존 설립된 자무구의 혁신 제도와 우수한 사례들을 다른 자무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9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해운·항만·물류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데 국한되었지만, 과거에 발표된 내용까지 종합하고, 다른 영역의 혁신 제도와 사례들을 파악한다면, 중국에 기 진출 혹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각 지역 자무구들은 해당 지역 및 경제 배후지의 산업특성, 자무구의 설립 포지셔닝에 따라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수한 혁신제도들도 구비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파악함으로써, 자무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푸젠 자무구의 경우 대 타이완과의 무역 분야에 개방이 되어 있고, 타이완과의 무역금융 교류를 편리화하는 조치들도 발표되었는데, 이는 타이완 시장 진출 혹은 타이완에서 중국 진출 및 타이완, 한국, 중국과의 3자간 무역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번 호의 ‘이슈 포커스’에서 언급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무구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거기에는 정책적인 홍보 부족, 토지 및 임대료의 상승, 일부 혁신제도의 경우 한정된(자격을 갖춘) 기업들만 활용이 가능하는 등의 애로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자무구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진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국의 각 자무구 관리위원회와 진출기업이 직접적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자무구 진입을 도와주는 플랫폼 마련도 좋은 방안이다. 향후 중국 각 지역의 KOTRA, 총영사관, 기타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자무구에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자무구 제도의 활용 장단점에 대한 조사가 더욱 심화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동향 & 뉴스

### 경제 · 정책

- 「중국-프랑스 생물다양성 보호와 기후변화 베이징 이니셔티브」 발표
- 「창장삼각주 스마트 해운 발전 보고」 발표
-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글로벌 해운 산업사슬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
- 중발전개혁위, 수운·물류업 구조 조정, 프로젝트 33개 추진 예정
- 교통운수부 등 9개 부문 공동 지도의견 발표, 세계 일류항만 건설 가속화
- 중국-러시아, '빙상실크로드' 공동 탐사
- 중국해양석유총공사(中海油), 중국 국내 해양 석유·가스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해운 · 항만 · 물류

- 징둥물류(京东物流), Agility와 MOU 체결로 해운서비스 제공 계획
- 소양산(小洋山) 북측개발, Ab구역 육상 공사 시작
- 무인 중형트럭 양산항에서 운행, 3-5년 내 대량 상업화 운행예정
- SINOTRANS, 1-3분기 순이익 21.1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5% 증가
- 중구해운(中谷海运), 웨이팡(潍坊)-칭다오/웨이하이(威海) 정기항로 개통
- 산둥, 항만-해운 환경오염원 원천 봉쇄 강화
- 텐진항-PSA 전략적 협력협정 체결

- 저우산시 해운·항만 통상구, 국제 일류 해사서비스 기지 건설 예정
- 광시(중국·아세안) 곡물 물류산업원구 창고 운영 시작, 전체 원구는 2022년에 운영 예정
- 상하이항그룹, 올해 1~3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
- COSCO SHIPPING과 상해교통대학교, 전략적 MOU 체결

### 해양 · 수산

- 중국,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시
- 남중국해 해역에서 해일 조기경보센터 정식 운영
- 중국 국무원, 수상구조 업무 강화 대책 마련
- 산둥성 「성급 해양의식 교육 시범기지 관리 임시시행 방법」 발표
- 칭다오시, 국가급 해양빅데이터센터 설립 예정
- 산둥성 링산섬(灵山岛) 성급 자연보호구 종합계획 통과
- 옌타이(烟台), 2개 자연보호구의 범위 및 기능구역 조정
- 중국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계 인증 통과
- BBNJ 국제법학술세미나 샤먼(厦门)에서 개최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동향 & 뉴스

### 1 「중국-프랑스 생물다양성 보호와 기후변화 베이징 이니셔티브」 발표

11월 6일, 「중국-프랑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베이징 이니셔티브(이하 「베이징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베이징 이니셔티브」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기후 변화가 세계의 평화·안정, 식량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삼림과 토지 퇴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열대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삼림이 온실가스 흡수와 세계 생물다양성의 핫 이슈라고 제시했다.

「베이징 이니셔티브」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시스템 서비스 관련 정부간 과학정책 플랫폼'이 발표한 2019년 「글로벌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서비스 평가보고」 및 정부간 기후변화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육지, 해양과 빙권에 관한 2편 특별 보고서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발전패턴 전환과 개혁을 통해 생물다양성 상실을 유발한 주요 요인들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주요요인은 육지와 해양에 대한 이용 변화, 생물체에 대한 과도한 직접적인 이용, 기후 변화, 오염 및 외래종의 침입 등을 포함한다. 「베이징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창했다.

첫째, 자연에 기반한 해결방안 연맹을 통해, 생물다양성 상실 문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문제 및 토지와 생태시스템 퇴화 문제 등을 해결한다. 자연에 기반한 해결방안은 중요한 생태시스템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자원(담수)을 확보하고, 생계를 개선하며 건강한 음식과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한다. 이는 「유엔 기후변화 프레임 협약」 및 「파리 협정」의 목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둘째, '유엔 생태시스템 10년 회복 계획'에 따라 육지와 해양 생태시스템 퇴화 및 생물다양성 상실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적어도 30%의 회복 가능한 퇴화된 생태시스템을 회복시킨다. 이로써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보호, 사막화, 토지 퇴화 및 식량안전에 기여한다.

셋째, 모든 중요한 생태시스템을 보호하고, 산과 물, 숲과 풀 등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그들이 기후변화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해양 플라스틱과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의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다섯째, 해양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촉진한다.

여섯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전 협약」에 따라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강화하며, 남극 해양보호구 설립을 비롯한 남극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는 남극에서 해양보호구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곱째,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금이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 보전, 토지 퇴화 대응 등에도 사용되도록 한다. 국제 용자, 특히 인프라 분야에 관한 용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및 「파리 협정」과 부합하도록 한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 2 「창장삼각주 스마트 해운 발전 보고」 발표

10월 25일, 제2차 ‘신시대·대항해·강국몽(强国梦)-스마트 해운 및 혁신 발전 포럼’이 상하이 린강(临港)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 해운 과학기술 성과 전시, 정책 교류, 시장 전략 연구 및 산업 사슬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통 산업과 스마트 해운의 융합 촉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을 통해 교통강국(交通强国) 건설에 공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스마트 해운의 미래 발전에 대하여, 교통운수부 쉬주위엔(徐祖远) 전임 부부장(副部长)은 여러 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스마트 해운 발전에 새로운 활력,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정부의 주동적인 역할, 업계와 사회의 적극적인 추진, 세계 각국 간의 양호한 상호 교류 등 3개 방면을 강조했다.

교통운수부 지민보(姜明宝) 선임 엔지니어는 정부가 스마트 선박 기술 응용 등 10개 항목의 중점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 및 시스템을 강화하며, 스마트 해운 관련 정책적 보장 및 관리체계 구축 촉진, 스마트 해운 응용·관리 등 기술상 난제에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통운수부 해사국 증휘(曾晖) 2급 순시원은 스마트 해운 법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창장삼각주 스마트 해운 발전 보고」(이하 「보고」로 약칭으로)가 발표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중국 조선업 및 해운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기술과 산업체계를 이미 구축했고 국제 선진 수준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 운항 안정성 보장 분야에서 항로 표지, 측량, 통신 등 3대 업무에서는 이론과 기술, 응용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상위 수준에 속한다.

스마트 항만 분야에서 관련 기업은 이미 항만 5G 스마트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내하 항만도 스마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해운서비스 분야에서 창장삼각주지역은 이미 중국 스마트 해운서비스의 거점을 되었다. 스마트 해운 감독 분야에서 중국의 해사부문은 적극적으로 ‘스마트 해사’ 구축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자 컨트롤 시스템 발전을 통해 선박 입체화 감독, 데이터 정보 공유를 실현하는 중이다.

<출처 : 中国水运报, 2019. 10. 28.>

## 3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글로벌 해운 산업사슬 협력’ 이니셔티브 발표

11월 6일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 COSCO SHIPPING그룹, 중국이치자동차그룹(中国第一汽车集团有限公司), 산둥(山东)성항만그룹, 가와사키중공업,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通信), 발틱국제해운거래소(BIMCO) 등 여러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해운 산업사슬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 발표하였다.

이니셔티브는 현재 해운 및 관련 산업은 외부 환경 및 내부적인 발전이란 이중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해운 산업사슬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산업사슬 협력’ 이니셔티브는 해운업 관련 감독 부서, 화주, 선주, 기술 관련 기업, 포워드 등 다양한 업계들이 평등·자발적(平等自愿) 및 공상·공건·공향(共商共建共享,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누림)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총 4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산업사슬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및 해운 편리화를 지원하여, 무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해운업은 무역의 주요 운송방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동시에 관련 업계와 함께 산업사슬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산업사슬 협력 강화를 통해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사슬 업·다운스트림 산업의 공급·수요와 연결을 통해 무질서한 경쟁 및 비효율적인 투자를 피하는 동시에 자원 배분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사슬의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③ 산업사슬 협력 강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해운업 서비스의 본질로 돌아간다. 고객의 가치 창조를 핵심으로 하여 산업사슬이 지니는 여러 분야의 강점 발휘를 통해 가치 창조, 서비스 품질 및 상품 혁신 등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다. ④ 산업사슬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한다.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 배출 감소, 디지털 혁신 등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대한 같이 책임지며, 함께 성과 공유를 통해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여, 각 방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시대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해운 관련 산업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함께 건전한 해운 생태계를 구축하며,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澎湃新闻, 2019. 11. 06.>

## 4 中발전개혁위, 수운·물류업 구조 조정, 프로젝트 33개 추진 예정

최근 국가발전위는 수정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이하 「목록」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수운, 종합교통운송, 현대 물류업 등 총 33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목록」의 각종 추진 프로젝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목록」을 관철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시장의 자원 배분에서의 결정적인 역할 및 정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감독·감사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엄격히 감독하며,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산업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수운 분야의 장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1. 심수 선석(연해 만 톤급, 내하 천 톤급 및 이상) 건설
2. 연해 심수 항로, 내하 고등급 항로 및 통항 건축물 건설, 서부지역 및 빈곤 지역 내하항로 건설
3. 연해 항만 배후 연계도로 교통운송부두 건설
4. 대형 항만 하역 자동화 공사
5. 해운 전자데이터 교환 시스템 응용
6. 수상 교통안전 감독 및 구조 시스템 구축
7. 내하 선박 표준화
8. 구(旧) 항구 기술 개조 공사
9. 선박 오염물질 항만 접수 처리 건설 및 장비 제조, 항만 위험 화학품, 석유제품 비상대응시설 및 장비제조
10. 내하 자동하역형 컨테이너선 운송 시스템
11. 수상 고속 여객선
12. 항만 갠트리 크레인 오일에 튜브 전기로(油改电) 연료 절약 개조 공사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13. 수상 Ro-Ro 복합운송
14. 수운업 정보 시스템 구축
15. 국제 크루즈 운송 및 크루즈모항 건설

종합교통운송 분야의 장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1. 종합교통허브 건설 및 개조
2. 종합교통허브의 환승 편의 및 수화물 운송 시스템 구축
3. 종합교통허브 운영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응용
4. 종합교통허브 유도시스템 구축
5. 종합교통허브 일체화 서비스 인프라 건설
6. 종합교통허브 재난 방지 및 재해 제거, 응급 분산 시스템
7. 종합교통허브 화물 운송 편리화 장치 교체 시스템 구축
8. 여객 연계운송 인프라, 티켓 일체화, 복합 운송 상품 개발 및 응용

현대 물류업 분야의 장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1. 석탄, 곡물, 목면, 철광석, 화학 비료, 석유 등 주요상품 현대화 물류 인프라 건설
2. 농산물 물류 배송 인프라 건설, 농산물, 식품, 약품의 콜드체인 및 식품, 약품 물류품질 안전 제어 기술서비스
3. 현대공급사슬 혁신 및 응용
4. 복합운송 환적운송 인프라 건설, 복합운송의 신속한 환적 운송장치 교체, 표준화 컨테이너 및 팔레트 운송 개발 및 응용
5. 표준 팔레트 및 600mm×400mm 포장모델의 보급 및 응용, 친환경, 재활용 재질 팔레트의 제조 및 응용
6. 물류 정보서비스기술, 화물 위치추적기술, 스마트 창고 분류 및 배송 기술, 물류 정보안전기술의 개발 및 응용
7. 긴급물류, 회수물류, 녹색물류 인프라 건설 및 운영
8. 물류공공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9. 물류허브건설 및 운영
10. 도심 물류에서 필요한 공공 창고, 차량 정차, 하역, 충전 등 부대 인프라 건설

<출처 : 港口圈, 2019. 11. 11.>

## 5 교통운수부 등 9개 부문 공동 지도의견 발표, 세계 일류항만 건설 가속화

최근 교통운수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응급부(应急部), 세관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철도그룹 등 9개 부문과 연합하여 「세계일류항만건설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建设世界一流港口的指导意见)」(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시진핑 주석의 항만발전의 중요 지시사항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해, 「교통강국건설 개요(交通强国建设纲要)」를 이행하고 안전 건설, 스마트 친환경, 고효율 및 기초가 탄탄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일류항만 건설 가속화의 의지를 나타냈다.

「의견」에 따르면, 교통운수부는 비용 절감, 효율 증대를 촉진하고 친환경, 스마트, 안전 발전을 추진하며, 육·해복합연계운송과 항만-산업-도시 융합을 추진한다. 또한 보다 나은 항만 건설과 관리, 발전을 추진하여 일류 설비, 일류 기술, 일류 관리, 일류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서비스의 종합허브기능이 강화된 항만을 구축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항만의 수준 높은 발전 및 허브항만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빠르며, 스마트 친환경, 고효율, 기초가 탄탄한 세계 선도의 일류항만을 구축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고 국가의 중점전략에 이바지하여 교통강국건설에 있어서 ‘항만 파트’를 새로이 써나갈 것이다.

「의견」은 시스템 기획을 강화하고, 프레임 구조를 최적화하며 세계 일류항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목표, 임무와 조치를 수립했다. 「의견」은 교통강국 건설을 총괄하고, 시장주도를 견지하며 동시에 정부 인도, 목표 지향, 개혁 혁신, 전체 총괄추진, 중요 사항 중점 추진, 세부분류 지도 등의 뜻을 담아 3단계 발전 목표를 명확히 했다. 3단계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25년까지 세계 일류항만 건설의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 주로 친환경항만, 스마트, 안전발전 부문에 있어 큰 성과를 내고, 지역성 주요 항만과 일반항만의 전문화, 규모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다음으로 2035년까지 전국 항만 발전수준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요 항만들 모두 세계 일류수준에 달하게 하고, 일부 허브항만은 세계 일류항만으로 도약한다. 또한 전세계 항만 친환경 발전과 스마트 발전을 이끈다.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 세계 일류항만을 전면 구축하고 ‘세계급 항만군’을 조성하며 그 발전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들도록 한다.

「의견」은 핵심 영역과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통합하여 6개 방면, 19개의 구체적 임무를 제시했다. 첫째는 항만의 종합서비스 능력의 향상, 공급시스템 최적화, 항만 종합서비스기능 향상에 주력하고 복합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임무이다. 둘째, 친환경항만건설의 가속화, 오염방지 강화, 클린 저탄소의 항만에너지 체계 구축, 자원 절약과 에너지 순환 이용, 생태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무이다. 셋째, 스마트항만 건설 가속화, 지능화 항만시스템 건설, 스마트물류 건설 가속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무이다. 넷째, 개방·융합발전추진 가속화, 항만 항공 협동발전 적극추진, 항만-산업-도시 융합발전추진, 비즈니스환경 최적화 개선 지속, ‘일대일로’ 건설에 이바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무이다.

다섯째, 안전한 항만건설의 가속화, 안전 강화,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안전보장 강화와 응급처리능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무이다. 여섯째, 항만정비시스템 현대화추진, 중점영역개혁심화, 법규정책표준 정비추진, 시장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시스템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무이다.

이 외에도 「의견」은 3개의 정책 보장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조직지도 강화, 당의 지도사항을 세계 일류항만건설 전과정에 관철시키고, 지방정부가 항만 발전을 통해 경제·사회발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각 임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만의 특징과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비슷한 포지션의 선진항만을 벤치마킹한다. 지역성 주요항만과 일반항만은 과학적 포지셔닝으로 특색을 살려 규모나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발전에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자금보장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보장사업 자금과 합리적인 해상·육지의 이용, 각 부문의 소통과 협력 확대를 통해 일류항만 건설을 추진한다. 셋째,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마케팅과 가이드 역할을 강화하고 항만문화건설 가속화 및 적극적으로 교통강국건설에 참여하여 여건을 갖춘 항만과 기업이 세계 일류항만을 벤치마킹하고 보다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다.

「의견」은 수준높은 발전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빠른 항만, 스마트 친환경, 고효율, 탄탄한 기초, 세계 선진 등의 5개 방면에 걸쳐 16개 항목의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항만 발전의 ‘3개 전환발전’을 실현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서와 위원회는 시스템 및 연구 부문에 있어 세계 일류의 ‘강한 항만’ 건설에 대한 지도 의견을 제정하고 금년 중 발표 할 계획이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다. 금년 10월 16일, 교통운수부 리샤오펑(李小鹏) 부장은 업무회의를 주최하여 「세계 일류항만건설에 대한 지도의견」 등 문건을 심의했는데, 동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항만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여러 차례 직접 항만을 시찰하고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려 항만 발전의 방향을 확정했으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세계 일류항만 건설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를 실천하는 것이며, 교통강국 건설 가속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민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다. 책임감, 사명감과 절실한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세계 일류항만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출처 : 中港网, 2019.11.13.>

### 6 징동물류(京东物流), Agility와 MOU 체결로 해운서비스 제공 계획

10월 29일, ‘글로벌 스마트 물류포럼’에서 징동물류(京东物流)는 글로벌 물류회사인 Agility와 MOU를 체결했다. MOU 내용에 따르면, 징동물류는 Agility와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가장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및 물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징동물류는 Agility의 중국 전자상거래 업무 확대, 공급사슬 효율 제고 등을 돕기로 했다.

징동물류그룹 왕정휘(王振辉) CEO는 징동물류와 Agility등 국내외 유명 기업이 함께 고객에게 해상, 육상, 항공, 철도 등 여러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산업사슬 차원에서 최선의 물류방안을 통해 원가 절감 및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gility는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항공화물 운송능력을 발휘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징동물류의 ‘과징(跨境, 직구·역직구 전자상거래)’ B2C 간선서비스 및 현지 B2B 창고, 보관, 관리, 포장, 운송 등 서비스 제공사로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gility의 해상화물 운송능력도 징동물류 해운서비스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징동물류의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Agility는 중동, 아프리카시장에서 징동물류 B2C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사 및 통관·배송 서비스 제공사로 역할하며 징동물류의 현지 물류시스템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징동물류는 자신의 B2C 상품, 업무 관리 및 운영 경험을 Agility와 공유하고, 양측이 같이 ‘과징’ Door To Door 및 현지 B2C 상품 개발을 통해 징동물류의 해외 ‘과징물류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Agility는 글로벌 Top 10에 속하는 포워더 및 물류회사로서, 그 서비스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등 100여개 국가와 450개 지역을 커버한다. 중국에서 역시 발달한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 中国航务周刊, 2019. 11. 1.>

### 7 소양산(小洋山) 북측개발, Ab구역 육상 공사 시작

11월 5일 오전 저장성해항그룹(浙江省海港集团)이 투자·건설한 소양산(小洋山, 상하이 양산항 소재지역) 북측개발 Ab구역의 육상 공사가 시작됐다. 이는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전략’중에서 항만협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창장삼각주 지역 대외개방에 있어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주석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창장삼각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주지역 일체화 발전을 지지하며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킨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저장성은 창장삼각주지역이 더욱 수준높은 일체화발전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는 목표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실천으로 소양산 협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착공한 소양산 북측개발 Ab구역 육상 공사는 소양산 북측 지선부두 공사의 초기 건설사업이자 소양산 간척 1기 공사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 공사는 4월 24일 사전작업이 착수된 이후, 8월 5일 저장성 인민정부로부터 「소양산 간척 1기 공사 매립의 과거미해결 문제 처리방안(小洋山围垦一期工程围填海历史遗留问题处置方案)」의 비준이 통과되고 국가 자연자원부에 신고를 마쳤다. 8월 12일, 공사의 기초설계가 저우산시 성쓰(嵊泗, 소양산도가 속한 행정구역)현 발전개혁국의 승인을 통과했으며, 총투자액은 10.35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건설 내용은 주로 총 길이 2,843m의 침식지역의 지반을 높이고, 총 길이 79.8m의 제방을 높게 하는 한편 약 101.29m<sup>2</sup>의 신규 육지면적을 조성하는 것이다. 총 공사 기간은 25개월로 2021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출처 : 港口圈, 2019.11.5>

### 8 무인 중형트럭 양산항에서 운행, 3-5년 내 대량 상업화 운행예정

최근 상하이자동차그룹, 상하이국제항만그룹(SIPG), 중국이동통신은 공동으로 세계 최초 '5G+L4급 스마트운행 중형트럭'의 시범운행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 5G 스마트 중형트럭 운행은 항만작업 효율, 통행 효율, 환경 보호수준, 안전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상하이 양산항이 세계 선도의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이다.

상하이 심수항물류원(深水港物流园)에서 동해대교를 거쳐 양산항까지 왕복 72km의 물류 순환노선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터미널, 야적장, 야간의 많은 교통통과 수량 등 복잡한 물류수단을 포괄하고 있으며, 매년 60일 이상되는 동해대교상의 7급 이상의 강풍까지 견뎌내야 한다.

AI, 5G, V2X(차량연결통신) 등 선진기술과 융합된 상하이자동차그룹의 스마트 중형트럭은 상하이시 스마트네트워크 자동차 개방도로 테스트 면허증을 획득하였고, 항만 구역의 특정 장소에서 L4급 자동운행, 센티미터 단 위 위치감지, 정확한 정차 및 자동화 항만기계설비와 상호연계 및 동해대교 대열 주행을 실현하여 항만운송 고객을 위해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고효율의 친환경 컨테이너 운송방안을 제공하게 되었다.

자체연구개발을 기초로 한 시각감지, 광선레이더, 밀리미터파 레이더 및 위성과 관성항법(inertial navigation)이 결합된 상하이자동차 스마트 중형트럭은 다차원, 전방위 360도 감지능력을 갖춰 전후 각 약 250m, 좌우 각 약 80m 범위 내를 정확히 감지할 수 있다. 스마트 트럭은 행인, 차량, 기타 장애물 등을 정확히 감지하여 경로를 설정함으로써 '인간' 운전자보다 더욱 안전하게 차량을 조종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의5G-V2X기술을 통해 상하이자동차 스마트 중형트럭은 20밀리초 내 차량행렬 사이의 실시간 상호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차량을 따라가고, 차선을 유지한 채 방향을 조정하며, 긴급제동 등 기능을 갖춰 줄맞춘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보장의 전제하에 차대 운행 간격을 150m에서 15m-20m 이내로 단축시켜 동해대교의 통행능력을 100% 향상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동해대교 신축'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내의 작업에 있어 위성신호가 쉽게 막히곤 했는데 상하이자동차 스마트 중형트럭은 고화질 지도, 지면 위치감지, 시각레이저 감지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바일 크레인, 트래블링 크레인과의 V2X 기술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위치감지 및 15초 내 1회 정확한 정차를 실현하여 단일 하역작업효율이 1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전세계 최초의 'LNG+12AMT조합'(천연가스발동기+12속 자동변속기) 클린에너지 동력시스템에 힘입어 상하이자동차 스마트 중형트럭은 컨테이너 운송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은 전통적 디젤동력 중형트럭보다 60% 감소시켰다. 소식에 따르면, 양산항 시범운영 이후 상하이자동차그룹, SIPG와 중국이동통신은 2020년 스마트 운행 중형트럭의 소량 시범운행을, 향후 3년에서 5년 내 대량 상업화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经济日报, 2019.11.14.>

## 9 중국,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결 중시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국제사회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다. 이 문제 해결은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긴밀히 관련돼 있으며 정부, 기업과 대중의 참여가 필요하다. 중국은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에 대한 오염 해결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무공해(无害)화 처리를 추진한다. 관련 기관은 생활쓰레기에 관한 분류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회수와 이용을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무공해화 처리를 촉진하여 플라스틱 쓰레기가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으로 배출되는 것을 통제한다.

둘째, 전문적 정돈을 강화한다. 해양쓰레기 오염에 대한 방제는 '만장제(湾长制, 각 담당 구역(만)에 대한 책임관리제)' 시범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생산·생활 쓰레기가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화하고 연해도시에서 해양쓰레기 오염 종합 방제 시범사업을 전개해 왔다. 예를 들면, 「보하이(渤海) 종합정돈 액션플랜」에 의해 보하이로 합류하는 하천과 연안해역의 쓰레기에 대한 종합정돈 활동을 전개했다.

셋째, 대중의 참여를 강화한다. 대중의 해양쓰레기 오염문제 해결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들의 해수욕장 청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청결에 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왔다. 옌타이(烟台), 다롄(大连)과 르자오(日照) 등 연해도시에서 해수욕장 청소활동을 연이어 전개했다. 이를 계기로 대중에게 소비습관 전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제창했다.

넷째,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한다. 2007년 부터 해양쓰레기를 해양환경 정례 모니터링의 범위로 포함시켰다. 2016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해양환경 정례 모니터링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대중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에 해양과 극지에서 최초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했다.

다섯째, 관련 과학연구를 강화한다. 2017년 중국은 국가 중점 전문연구사업을 시작했는데, 연안해역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확산경로, 환경행위와 생물독성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실행했다. 또한 학술교류와 데이터 정보 공유를 장려하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과 리스크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여섯째,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세계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 방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 해양 플라스틱 대양에 관한 성명' 및 'G20 해양 플라스틱 액션플랜에 관한 실시 프레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중국-일본, 중국-캐나다와 중국-미국 간의 양자협력으로 해양쓰레기 방제에 관한 협력 체계를 수립했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또한, 올해 9월 9일 중국은 「플라스틱 오염 정돈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켰는데,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의견」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고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방제를 계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9. 11. 4.>

## 10 남중국해 해역에서 해일 조기경보센터 정식 운영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의 비준으로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해 해역 해일 조기경보센터가 11월 5일에 정식으로 운영 개시했다. 향후 동 센터는 중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 등 9개 남중국해 주변국가에게 전천후의 지진·해일 모니터링·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이 설립한 서북태평양 해일 조기경보센터가 남중국해 해역에 제공해 주는 임시 해일 조기경보 서비스는 중지되었다.

왕홍(王宏) 중국 자연자원부 국가해양국 국장에 따르면, 남중국해 해역에서 해일 조기경보센터의 정식운영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국가와 해양분야에서 실무적 협력을 전개하고 '일대일로' 정책이 제창하는 '공동 논의, 공동 건설, 성과 공유'의 이념을 실천하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해양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고 중국이 세계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여이라고 강조했다. 왕홍 국장은 중국 자연자원부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해일 조기경보 모니터링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해일재해의 조기경보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힘을 바쳐 남중국해 해역의 재해 예방·감소를 위한 중국의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기경보센터의 서비스 구역은 남중국해, 술루해와 술라웨시해를 포함하고, 이 구역의 주요 지진 섭입대(subduction zone)를 포괄한다. 이 센터는 남중국해 주변국가에게 24시간 전천후의 지진·해일 모니터링·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며, 재해감소에 관한 훈련, 홍보와 교육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조기경보센터의 건설과 운영은 남중국해 주변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의 성과이고 중국은 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기경보센터가 계획부터 정식 운영될 때까지는 총 10년을 걸렸다. 이 기간 중국의 지진·해일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중국은 자주적으로 지진·해일 모니터링 네트워크 시스템, 해일 조기경보 시스템과 해일재해 감소 시스템을 구축해냈다. 이를 통해 중국 연해지역, 남중국해 주변국가, 그리고 관련해역에 신속한 해일 조기경보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한 새로운 지능화 해일 조기경보 정보처리 플랫폼은 세계 해저 지진에 대한 모니터링, 세계 수위(水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태평양 해일에 대한 예보 등 기능도 갖추고 있고, 해일장면 데이터베이스와 해일 관련 제품 제작·발표 등의 하위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일에 대한 조기경보 시간을 8~12분 단축시켰고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9. 11. 6.>

## 11 중국 국무원, 수상구조 업무 강화 대책 마련

최근 중국 국무원은 「수상구조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水上搜救工作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상선 및 어선, 자원봉사자 등 전사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 2018년 중국 자무구 외자 유치 및 수출입 총액
- ▶ 이슈 포커스 : 2019년 중국 자무구 해운·항만물류 동향 [2] - 벤치마킹 혁신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 동향 & 뉴스

회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구조팀과 봉사자팀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지」는 수상구조 업무의 강화를 위해 ① 수상구조 체제 보완, ② 연석회의의 개선, ③ 정보자원 공유, ④ 수상구조 계획과 예방책 체계 보완, ⑤ 법규와 표준체계 구축 강화, ⑥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⑦ 현대화 수상구조 인재개발, ⑧ 수상구조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중국의 수상 구조 업무 강화 대책]

구분	내용
수상구조 체제 보완	- 국가 해상구조 관련 기관은 전국의 해상구조와 선박오염에 관한 긴급대응을 통괄적으로 조정하며, 완비한 예방책과 규정제도를 수립하고, 지방의 관련 업무를 지도
연석회의의 개선	- 국가 해상구조 연석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해상구조와 선박오염에 관한 긴급대응 업무를 통합하고 연석회의, 긴급 상담회의, 합동훈련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강점을 발휘
정보자원 공유	- 국가 해상구조 연석회의 및 지방 각급 수상구조 연석회의의 구성기관들은 기관들이 보유한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하고 예측·예방·조기경보의 능력을 향상시킴
수상구조 계획과 예방책 체계 보완	- 국가 수상 교통안전에 대한 감시, 구조 시스템 배치 계획 및 중대 해상 석유유출 긴급대응 능력 향상 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 국가 해상구조 긴급 대응책 및 중대 해상 석유유출 긴급대처 예방책에 대한 홍보와 이행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전개
법규와 표준체계 구축 강화	- 국가 해상구조 연석회의는 해상구조에 관한 법규와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하고, 해상구조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이를 통해 각급 수상구조기관이 관련 수상구조 당직규정, 플랫폼 건설 및 구조 지휘, 장비배치, 위험사태 대처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제정·보완하는 기반을 조성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 수·원해 구조와 인양의 핵심기술과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심수·원해 및 야간운항 구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공지능, 새로운 정보기술과 위성통신 등을 수상구조 활동에 응용할 수 있게 하고 '12395' 수상구조 전화를 보편화시킴.
현대화 수상구조 인재개발	- 국가 전문 구조인양팀 및 국가 해상구조 연석회의의 구성기관의 수상구조능력을 제공 - 공동훈련의 여건을 조성하고 구조 관련 훈련·교육을 강화 - 상선, 어선, 자원봉사자 등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회 구조팀과 봉사자팀을 육성 - 이와 동시에 관련업무를 위한 기술적 보장을 제대로 제공해주기 위해 지역 및 기관 간 다양한 분야의 수상구조 전문가팀을 육성
수상구조에 대한 교류와 협력 강화	- 국가 해상구조기관은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관련 국제협력에 따라 국제구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중국의 해상구조 수행능력과 국제영향력을 제고

<출처 : 中国海洋报, 2019. 11. 12.>